

아이들의 시·그림, 도량을 수놓다

완도 신흥사, 11월 6일 '장보고 청소년 백일장' 성료

"제가 그린 그림이 가장 예뻐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내민 아이의 모습에 덩달아 주지 스님의 얼굴이 더욱 환해진다.
완도의 한 사찰 마당에 아이들이 가득 모였다. 아이들의 열정과 활기가 사찰 곳곳에 가득 배어있었다. 이날 섬 사찰에는 창건 이래 가장 많은 아이들이 뛰어다녔고, 그림 그리고, 노래를 하며 놀았다. 오랜만에 많은 아이들이 만난 사찰은 가슴으로 보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11월 6일 전남 도내 초·중·고등학생 500여 명이 완도 신흥사(주지 법일)를 찾았다. 1174주기를 맞은 장보고 대사 추모와 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9회 장보고 청소년 백일장 대회(이하, 장보고 백일장)'가 열린 날이기 때문이다.
완도 신흥사가 청소년들을 위해 만든 비영리단체인 장보고 아카데미(원장 법공)가 주최한 이날 백일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동안 쉬 없이 이어졌다. 참가학교도 25개 학교에 이른다.
마당을 정신없이 다니는 아이들이 시끄럽게 보이겠지만, 행사를 주최한 주지 법일

스님과 원장 법공 스님은 하루 종일 웃음을 감출 수 없었다.
올해 장보고 백일장은 예년과 같이 초등부(저학년, 고학년), 중등부, 고등부로 참가자를 구분하고 시와 산문, 그림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치러졌다.
특히 이번 대회는 목표와 해남지역 학교에서도 참가해 형식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명실공히 전남도내 가장 큰 문예행사로

전남 도내 청소년 500명 참가 "내년 10주년, 성대히 치룰 것"

승격됐다든 평가를 받았다. 참가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최우수상은 시 부문에서 공동으로 김소희(신지중 3, 전남도지사상), 신유라(완도중초 4, 전남도의회 의장상), 그림 부문 장수인(완도고 1, 전남도교육감상)의 작품이 각각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흥사 법공 스님은 "사찰이 멀게만 느



완도 신흥사는 11월 6일 174주기를 맞은 장보고 대사 추모와 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9회 장보고 청소년 백일장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백일장 대회에는 남 도내 초·중·고등학생 500여 명이 참석했다.

껴지는 곳이 아니라 언제든지 올 수 있는 편안한 곳이다"라고 말하며, "내년에는 백일장이 10주년을 맞는 만큼 다양한 문화행사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올해 성공적인 개최의 열쇠를 "적극적인 학교방문이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졌다"고 도움을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신흥사 주지 법일 스님은 1999년부터 장보고아카데미를 설립해 문화·교육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장보고 해외유적답사, 템플스테이, 백일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재까지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계종포교원 제27회 포교대상 원력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불교대학, 법인으로 '새출발'

11월 8일 사단법인 부처님 세상 법인 봉헌 선포

1988년 설립돼 지역불자들의 신생활을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불교대학이 사단법인 출범과 함께 새롭게 출발한다.

전북불교대학(학장 도원, 김제 청운사 주지)은 11월 8일 전주 완산불교회관 4층 큰 법당에서 '사단법인 부처님세상' 법인 봉헌 선포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사단법인 세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리아타의 보살의 삶을 선양하고 불교의 대중화, 수행화, 생활화를 목적으로 불교의 저변확대를 위한 포교사업, 전통불교문화체험사업, 생활불교지원 실천사업, 수행방법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기타 수익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초대 이사장 도원 스님은 "사단법인 부처님세상의 출범과 함께 결속력이 약한 지역의 불교계를 극복하기 위해 투철한 신



심과 원력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천상호 전북불교대학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이사와 박정규 감사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한편, 전북불교대학은 지난 28년간 약 3,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전북 지역의 대표적인 재가불자 교육기관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공덕의 밭을 일구는 도량으로"

광주 비전사 8일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

광주 비전사(주지 보혜)는 11월 8일 대웅전에서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식을 개최했다. 이날 회향식은 현봉 스님(강월암 암주),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 회장), 보혜 스님을 비롯해 200여명의 신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미타 후불명화, 신증명화(108구) 점안도 함께 봉행했다.

점안기도에 이어 법요식에서 현봉 스님은 법문을 통해 "점안은 부처님의 눈의 뜨게 하는 것이다"며 "불자들이 하루 일과와 시작은 눈을 떠야 세상을 보듯이, 점안을 통해 바로 수행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점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연광 스님은 축사에서 "늘 지역의 어려운 곳을 살피는 주지 스님의 원력대로, 중생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좋은 도량으로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주 서원노인복지관 2015 서원축제 개최

금산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전주 서원노인복지관(관장 지월)이 11월 12일 '2015 서원축제'를 개최했다.
정情·드림Dream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서원축제는 올 한해동안 복지관에서 배운 실력과 기량을 뽐내는 작품 발표회와 작품 전시회, 축하공연으로 꾸며졌다.
이번 축제는 각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익힌 오키나와, 판소리, 생활체조의 작품발표와 (사) 전통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국악공연과 퓨전섹소폰 연주, 가수 조복임씨의 공연등으로 꾸며졌다.
이밖에 장기대회와 바둑대회가 열리며 놀이체험, 만들기 체험, 뽕튀기 나누기, 농가체험들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13일에는 복지관 일대에서 복지관 기금마련을 위한 '작은 나눔 큰 사랑' 바자회가 열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무등산서 지역민 행복·안녕 기원

미륵사, 10일 무등산 산신대제 "무등산 聖山으로서 가꾸자"

광주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무등산 산신제를 열었다.
무등산 미륵사(주지 혜법)는 11월 10일 경내에서 지선 스님(고불총림 방장),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장), 지각 스님(동원사 회주), 무등 스님(광주동구불교연합회장), 박주선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주 동구지역 사찰 스님과 신도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5무등산 산신대제'를 봉행했다.
국립공원 무등산 탐방객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은 이날 행사는 광주동구불교협의회의 후원으로 오전 10시 육법공양, 불교의례, 산신정·시식에 이어 2부 법요식이 이어졌다.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은 "무등산을 잘 가꾸는 것이 산신신앙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한국의 산신은 우리민족의 아름다운 창건이야기를 담은 소중한 것으로 이것을 잘 보존하고 이어가야한다"면서 "무등산을 성스러운 산



광주 무등산 미륵사는 11월 10일 경내에서 '2015무등산 산신대제'를 봉행했다.

으로 잘 가꾸는 것이 산신신앙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문에 앞서 주지 혜법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무등산 아래 사는 많은 시민들과 불교인들이 산신제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광주불교연합회 연광 스님은 축사에서 "산신제를 통해 지역과 민족 공동체의 안녕과 발전을 함께 기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산신제는 지난 2006년 무등산 중

턱에 있는 장불재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이어왔으나, 2014년 국립공원 승격과 함께 산 아래에서 개최되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동구불교연합회장 무등 스님은 "무등산 중심사에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산신비가 존재할 정도로 산신제는 시민들과 오랜 역사를 갖는 행사이다. 차후 장불재에서 열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 성흥사, 영산보전 낙성법회 봉행

오백나한 점안도 함께

군산 성흥사(주지 송월)가 새로운 도량 부지를 마련하고 영산보전 낙성식 및 오백나한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성흥사는 11월 7일 열린선원 법현 스님, 마이산 탐사 진성 스님, 순창 장덕사 청암 스님, 군산 사암연합회 스님들과 김관영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영산보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송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좋은 인연을 함께하고 불사에 동참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역의 대표적인 전법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법어를 통해 "성흥사 영산보전 낙성을 계기로 기쁨은



배가시키고 슬픔은 반감하는 도량이 되기 바란다"며 "불자들의 기도와 수행 정진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빛을 발하는 도량으로 되어달라"고 말했다.
성흥사는 앞으로 시민선량 건립, 종각 등의 불사를 계속 추진해 군산 서부지역의 전법 중심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영산재 유네스코등재 6주년 기념

광복 70주년, 세계평화와 남북통일 및 국태민안 기원

제1회 세계문화유산 아시아 불교문화 축제

초대합니다

1,700년 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한국불교태고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중생 구제는 물론 찬란한 전통불교문화를 계승 보존해 왔습니다. 광복70주년을 맞아 세계평화와 남북통일 및 국태민안 기원을 위해 제1회 세계문화유산 아시아 불교문화축제를 세계각국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한국의 고유한 불교 전통의식인 영산재에 귀하를 초대하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합장

일시 : 2015년 11월 20일(음 10.9) 금요일 오후 3시

장소 : 서울시 잠실학생체육관

문의 : 아시아불교문화축제 조직위원회 1661-1974 (www.hope49.co.kr)

주최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주관 : 아시아불교문화축제 봉행위원회

후원 : 문화재청, 서울시,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영산재보존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BTN, BBS, 사)아리랑보존회

협찬 : 물마루



사전행사

유네스코, 영정사진서비스 유네스코지정작가 영정사진서비스

1부 행사

천지옴니 오프닝 : 야단법석 오프닝 인생 : 김성환의 인생스토리

2부 행사

희망49, 세계문화유산 영산재 태고종영산재보존회

Bridge

웃자 대한민국 : 추억의 코미디 쇼 엄용수, 배일집, 지역외의 10여명

3부 행사

해외불교국가 초청공연 중국, 태국, 티벳

휘나레

Arirang of Unesco 김영자, 김영임, 야단법석